



##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거룩

김래용(협성대)

### 1. 서론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서는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스겔서도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에 비해 2개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에스겔 1-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다루고, 에스겔 25-32장은 이방 나라의 심판을 다룬다. 반면에 에스겔 33-39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루고, 에스겔 40-48장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 형식을 통해 다룬다. 따라서 에스겔 1-32장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며, 에스겔 33-48장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이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함락(겔 33:21)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뉜다. 함락 이전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고(겔 1-32장), 함락 이

후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강조된다(겔 33-48장). 이와 더불어 에스겔 1-3장의 서론과 에스겔 33장에 나타나는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설화(겔 3:16-21; 33:1-20)는 메시지의 전환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에스겔의 소명설화에서 야웨는 에스겔에게 악인과 의인에게 야웨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 죄를 짓지 않게 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최악의 한 가운데 있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에스겔의 소명설화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야웨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다. 그것은 절망과 불신에 싸여 있는 백성들에게 야웨의 의도를 정확히 알리라는 것이다. 이 당시 백성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라며 절망 가운데 있었고(겔 33:10), 또한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며 불평하고 있었다(겔 33:17). 이러한 상황에서 야웨는 에스겔을 불러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강조되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에스겔 28장 22절은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고 말하며, 에스겔 38장 16절은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심판을 위한 목적으로 ‘거룩’과 ‘야웨에 대한 인지(認知)’가 강조된다. 반면에 다음의 구절들은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거룩’과 ‘야웨에 대한 인지’를 강조한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하게 하며 ...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겔 37:26-28),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겔 38:23). 이러한 구절들은 거룩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의 의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거룩이 구체적으로 에스겔서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와 어

면 관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의 구성을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거룩이 심판신탁과 구원신탁에 끌고루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 1-24장에 9번(שָׁרָף, 겔 20:12, 20, 41; שָׁרָף, 겔 20:39, 40[2번]; 22:8, 26[2번]), 에스겔 25-32장에 3번(שָׁרָף, 겔 28:22, 25; שָׁרָף, 겔 28:14), 에스겔 33-39장에 14번(שָׁרָף, 겔 36:20, 21, 22, 38; 겔 39:7[2번], 25; שָׁרָף, 겔 36:23[2번]; 37:28; 38:16, 23; 39:27; שָׁרָף, 겔 39:7), 에스겔 40-48장에 48번 나타난다.<sup>1)</sup> 그리하여 위의 4개의 단락을 분리하여 각각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거룩의 연구를 통해 거룩의 기능과 거룩과 메시지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거룩이 에스겔서 메시지의 핵심 구성요소와 글의 소재가 됨을 주장할 것이다.

## 2. 연구동향

에스겔서에 나타난 거룩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는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sup>2)</sup> 첫 번째는 거룩과 메시지의 관계이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거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에스겔의 해석학적 전승은 오경의 제사장계 전승에 속하며, “이 전승은 야웨의 거룩하심에 대한 몰두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순하고 오염된 백성 안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게 된 때의 임재의 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해석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야웨의 거룩함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전략이 되며, 심판신탁은 “온 세상이 보게 될 야웨의 거룩함을 힘차게

- 
- 1) 거룩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 나타난다(שָׁרָף, 겔 42:13; שָׁרָף, 겔 44:19, 24; 46:20; 48:11; שָׁרָף, 겔 41:4[2번], 21, 23; 42:13[5번], 14[2번], 20; 43:7, 8, 12[2번]; 44:8, 13[3번], 19, 23, 27[2번]; 45:1[2번], 2, 3[2번], 4, 6, 7[2번]; 46:19; 48:10, 12[2번], 14, 18[2번], 20, 21[2번]).
  - 2) 구약성서에서 거룩의 용례를 위해 W. Kornfeld/H. Ringgren, “שָׁרָף”,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7*(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521-545; John G. Gammie,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참조.
  - 3) 침머리(Walther Zimmerli)는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는 야웨와 그의 행위이며, 인지문구는 이것을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런데 막상 에스겔서에 야웨의 속성에 대한 강조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후대에 첨가된 본문에 야웨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Walther Zimmerli, *Ezekie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52-53 참조.

재 확인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소긴(J. Alberto Soggin)은 에스겔에게 세계의 역사와 그의 백성들의 역사를 위한 순환 축은 야웨의 거룩함이며, 특별히 이것은 ‘내가 야웨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인지문구와 함께 강조된다고 보았다.<sup>5)</sup>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에스겔서에서 죄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계명들 보다는 거룩한 질서에 대한 침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철저하게 거룩한 것의 영역에서의 실패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에스겔 16장, 20장, 23장에 언급되는 역사적 회고들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6)</sup>

두 번째는 거룩과 이름의 관계이다. 조이스(Paul M. Joyce)는 에스겔서가 야웨의 철저한 중심주의(Theocentricity)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신의 거룩함의 주제라고 보았다. 특별히 이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겔 36:22)이나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겔 36:23)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고 보았다.<sup>7)</sup> 갬미(John G. Gammie)는 에스겔서에서 야웨와 관련되어 ‘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 대신에 ‘나의 거룩한 이름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포로기 동안 발전한 것으로 에스겔 자신의 보충 작업이나 혹은 그의 학파의 보충(겔 20:39; 39:7, 25; 43:7, 8)이라고 생각했으며,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의 내재성과 신의 초월성이 강조되었다고 보았다.<sup>8)</sup> 박호용은 에스겔서에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문구는 야웨의 행동의 궁극적 목표를 명

4) 월터 브루그만, 「구약개론」(김은호/권대영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287-311.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유사한 주장을 위해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연구 3」(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 출판부, 2007), 342-348 참조.

5) J. Alberto Soggi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361.

6) Gerhard von Rad, *The Message of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7), 192-193.

7) Paul M. Joyce, *Ezekiel* (New York: T&T Clark, 2007), 29-30; Paul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ISOTSup 5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103-104.

8) John G. Gammie, *윗글*, 47-48.

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으로 특별히 포로기 이후 유다공동체의 정황과 관련됨을 주장하였다. 즉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자신들의 유익과 필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자들에 대한 반박에서 기인된 것으로 에스겔 학파의 깊은 신학적 성찰의 산물이라고 보았다.<sup>9)</sup>

세 번째는 거룩과 법전과의 관계이다. 에스겔서가 거룩을 강조하는 성결법전(H)과 오경의 문서들(D와 P)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sup>10)</sup> 특별히 콘(Risa L. Kohn)은 에스겔서와 P문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97개의 표현들을 조사하여 P문서와 에스겔서가 많은 주제적 관심을 공유한다고 보았다.<sup>11)</sup> 이러한 주장을 위한 하나의 예로 콘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거룩과 관련된 3개의 표현들을 조사하였다. 첫째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표현으로 이것은 P문서에서는 성소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끊임없는 범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았다. 둘째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할 것임이라.”는 표현으로 P문서는 이 표현을 오직 안식일이나 희생제물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반면에 에스겔서는 이 표현을 오직 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보았다. 셋째는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P문서와 에스겔서 모두 안식일과 관련하여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거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별히 에스겔서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거룩에 기초한다는 주장은 정확한 이해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주장을 위해 에스겔서의 각 단락의 메시지와 거룩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9) 박호용, “아웨인지공식의 관점에서 본 에스겔 38-39장의 편집사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신학박사학위 논문, 1999), 214.

10) 학자들의 구체적인 주장을 위하여 Risa L. Kohn, *A New Heart and a New Soul: Ezekiel, the Exile and the Torah* (JSOTSup 35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29 참조.

11) 윗글, 30-85 참조.

### 3.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거룩의 기능

#### 1) 에스겔 1-24장의 메시지와 거룩

에스겔 1-24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2)</sup>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패역한/반역한 족속’(בְּיַת נִקְּוָה, 겔 2:5, 6, 8; 3:9, 26, 27; 12:2[2번], 3, 29; 17:12; 24:3)으로 묘사된다. 야웨는 이들을 “얼굴이 뻘뻘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부르며(겔 2:4), 심지어 에스겔을 파송하면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라고 말한다(겔 2:3). 이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야웨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에스겔 1-24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임할 야웨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 속에 거룩이 9번 나타난다. 그런데 특별히 거룩은 에스겔 1-24장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과거와 현재의 반역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에스겔 20장에 6번 나타나고(שָׁרָף, 겔 20:12, 20, 41; שָׁרֵף, 겔 20:39, 40[2번]), 이스라엘 족속의 각계각층의 반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에스겔 22장에 3번 나타난다(שָׁרָף, 겔 22:8, 26[2번]). 비록 거룩이 2개의 장에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각계각층의 반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거룩의 기능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거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하여 에스겔 20장 40-44절에 언급된 구원의 메시지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 (1) 과거(겔 20:1-26)

에스겔 20장 1-26절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역의 역사를 다루는데, 여

---

12) 다음과 같은 단락은 구원신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겔 11:14-21; 14:21-23; 16:53-63; 17:22-24; 20:34-44). Claus Westermann, *Prophetic Oracles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7), 177-181 참조.

기에 거룩이 사용되고 있다. 이 단락은 특이하게 반역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언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의 반역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반역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한다.

1단계(5-9절)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반역을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비교법이 사용된다. 야웨의 은혜와 조상들의 반역이 대조된다. 여기에서 야웨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고, 애굽의 조상들을 짓과 꼴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조상들은 야웨의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을 행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반역의 삶을 살았다. 이들의 죄악을 위해 ‘가증한 것’(רָעָה)과 ‘우상’(עֲבֹדָ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부각시키는 핵심 단어들이다.<sup>13)</sup> 8-9절은 이들의 죄악과 야웨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러한 비교를 통해 조상들의 반역과 야웨의 은혜를 극대화한다.

2단계(10-17절)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의 반역을 강조한다. 애굽에서 ‘가증한 것’과 ‘우상숭배’로 인해 야웨를 반역한 조상들에게 야웨는 지침을 준다. 그것은 율례(חֻקֵּי)와 규례(מִשְׁפָּטִים)와 안식일(שַׁבָּת)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서 율례와 규례는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11절),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표징이 되는 것’이다(12a절). 이러한 지침을 통해 조상들은 생명을 얻고 야웨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야웨는 지침을 준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웨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וְיָדְעוּ כִּי אֲנִי יְהוָה מְקַדְּשָׁם, 12b절; 출 31:13 참조). 에스겔서의 많은 곳에 ‘내가 야웨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인지문구가 나타난다.<sup>14)</sup>

13) 김래용, “에스겔 1-24장의 심판신학에 나타난 후카/호크와 길물과 토에바”, 『신학사상』 180집 (2018년 봄), 9-46 참조.

14) 인지문구는 72번 나타난다(겔 1-24장에 34번; 겔 25-32장에 18번; 겔 33-39장에 20번). 자세한 논의를 위



그런데 여기에서는 독특하게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קִדְּשׁוּם)이라는 피엘형 분사구가 첨가된다. 이것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야웨의 의도인 것이다.<sup>15)</sup>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것을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에 관한 지침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덧붙여 그들에게 주어진 지침의 목적이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은 이러한 지침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침의 목적이 된다.

3단계(18-26절)는 광야 2세대의 반역을 강조한다. 야웨는 광야 2세대에게 ‘너희 조상들의 율례(קִדְּשׁוּם)를 따르지 말며, 그들의 규례(טַבַּחִים)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עֲלִילִים)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한다(18절). 애굽에서 시작된 우상숭배와 반역이 광야 2세대에게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다시 한 번 광야 1세대에게 주었던 명령을 반복한다. ‘나의 율례(קִדְּשׁוּם)를 따르며, 나의 규례(טַבַּחִים)를 지키며, 나의 안식일(שַׁבָּת)을 거룩하게 하라’(19-20a절).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이다. 광야 1세대에게 이러한 명령은 없었다. 야웨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안식일을 주셨다’(אֶת־שַׁבְּתוֹתַי נָתַתִּי, 12절). 그런데 광야 2세대에게 야웨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אֶת־שַׁבְּתוֹתַי קִדְּשׁוּ)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거룩의 개념이 추가되고 있다. 왜 이러한 개념이 추가되고 있는가? 특별히 20b절은 그 이유를 말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야웨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야웨와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표징이 되고, 나아가 이것을 통해 야웨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거룩한 야웨를 알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해 Walther Zimmerli, *I Am Yahweh*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박호용, “아웨인지공식이 나타나는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심판 본문의 특성”, 『신학과 문화』 11집 (2002년), 43-50 참조.

15) 김덕중,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용인: 킹덤북스, 2011), 48-49 참조.

16) Walther Eichrodt, *Ezeki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264.



것이다. 광야 1세대에게 지침을 준 의도가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야웨께서 이제 광야 2세대에게 거룩한 삶의 실천방안으로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은 삶의 지침의 목적(거룩한 삶)과 그 목적의 실천방안을 위한 구성요소가 되며, 동시에 과거 조상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핵심 근거가 된다.

## (2) 현재(겔 20:27-39; 22:6-31)

에스겔 20장 27-39절과 22장 6-31절은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족속과 각계각층의 반역을 지적한다. 특별히 백성의 죄악(겔 20:27-39)과 고관(𐤀𐤏𐤍𐤏)의 죄악(겔 22:6-16)과 제사장의 죄악(겔 22:26)을 언급하는 단락에 거룩이 나타난다. 따라서 위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에스겔 20장 27-39절은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의 반역을 언급한다.<sup>17)</sup> 이것을 위해 ‘가증한 것’(𐤁𐤏𐤏𐤏)과 ‘우상’(𐤁𐤏𐤏)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것은 애굽의 조상들에게 사용된 동일한 표현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아 가증한 것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목석을 경배하리라고 다짐까지 하였다(27-32절). 그리하여 야웨께서는 이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 광야에서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이지는 않겠다고 결심하였다(33-38절).

그런데 이 단락의 마지막(39절)에 삶의 지침이 첨가되고 있다.<sup>18)</sup> 여기에 거룩이 사용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sup>19)</sup> 삶의 지침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

17) 단락의 구분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에스겔 20장 27-39절은 에스겔 당시 백성들의 반역을 다룬다. Lamar E. Cooper, *Ezekiel* (NAC 17;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4), 206-207 참조.

18) Ronald M. Hals, *Ezekiel* (FOTL 19;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135-136 참조.

19) 39절의 자세한 논의를 위해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illiam

을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לֹא תִחַלְלוּ עִיר)는 명령이 주어진다. '나의 이름' 대신에 '나의 거룩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까지 '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9절, 14절, 22절).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조상들의 반역과 연결된다. 야웨는 광야 1세대에게 야웨의 의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강조했고, 광야 2세대에게 야웨께 나아가는 길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제 야웨께서는 백성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20장의 문맥을 볼 때, 야웨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지침과 그것의 실천방안을 강조했지만 야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שְׁמִי הַקָּדוֹ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야웨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sup>20)</sup> 한마디로 야웨께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거룩은 야웨의 본질이며, 동시에 야웨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22장 6-31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각계각층의 반역을 묘사한다. 에스겔 20장에서 백성들의 반역을 다루었기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계층의 반역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6종류의 계층이 언급된다. 고관(אֲשֵׁרִי, 6-16절), 선지자(נְבִיאִים, 25절), 제사장(כֹּהֵן, 26절), 고관(שָׂרִים, 27절), 선지자(נְבִיאִים, 28절), 백성(עַם, 29절).<sup>21)</sup> 그런데 거룩은 אֲשֵׁרִי(나시/고관)의 죄악(6-16절)과 제사장의 죄악(26절)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마도 나시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대표하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대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sup>22)</sup> 이것은 에스겔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654-655 참조.

20) 일반적으로 '거룩한 이름'은 야웨와 동격으로 취급된다(레 20:3; 22:2, 31-32 참조). 김덕중, *윗글*, 41-42; Donal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29 참조.

21) '선지자'에 대한 신탁은 25절과 28절에 2번 언급된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25절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נְבִיאִים(네비에하)를 70인역과 스가라 3장 3절을 근거로 하여 נְבִיאִים(네시에하/그의 나시)로 바꿔 읽는다. 그리고 29절의 אֲשֵׁרִי עַם(암 하아레츠/이 땅 백성)을 약자를 펴박한 중산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박철우, 「에스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09-411 참조.

22) 블락(Daniel I. Block)은 에스겔 22장의 나시를 '다윗 계열의 유다 왕들의 계승자'로 본다. Daniel I. Block,

40-48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겔 44:15-31; 45:9-17; 45:18-46:24 참조).

정치적 지도자인 나시의 죄악은 에스겔 22장 6-12절에 나타난다. 여기에 언급된 나시는 에스겔 37장 24-25절에 의하면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과 동일시된다. 한마디로 왕이나 왕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그런데 이 단락(겔 22:6-12)은 이들의 죄악을 무려 16가지로 언급한다. 이것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죄악(8-9절), 음행과 관련된 죄악(10-11절), 사회와 관련된 죄악(6-7절, 9절, 12절).<sup>24)</sup> 여기에서 거룩은 나시의 종교적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된다. '나의 성물들을 너는 업신여겼고, 나의 안식일들을 너는 더럽혔다'(וְאֵת שַׁבְּתוֹתַי הִלַּלְתָּ, 8절), '네 가운데 산위에서 [제물] 먹는 자도 있었다'(אֶל-הַהָרִים אָכְלוּ בָךְ, 9절). 이들의 죄악은 성물들에 대한 업신여김, 안식일의 더럽힘, 우상숭배 등이다. 이것은 과거 조상들(애굽;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에게 나타났던 죄악들로(겔 20:8, 16, 24 참조), 야웨께서 특별히 경고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어겼던 것이다. 따라서 거룩은 과거의 죄악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야웨의 심판의 근거와 심판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구성요소가 된다.<sup>25)</sup>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죄악은 에스겔 22장 26절에 나타난다. 5가지가 나열된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범하고', '그들이 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들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그들은 알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들로부터 그들은 그들의 눈을 가렸다.' 여기에

---

윗글 (1997), 725 참조.

23) '나시'는 에스겔서에 38번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John D. Levenson, *Theology of the Program of Restoration of Ezekiel 40-48* (Missoula: Scholars Press, 1976), 57-107; Steven S. Tuell, *The Law of the Temple in Ezekiel 40-48* (Atlanta: Scholars Press, 1992), 103-120 참조.

24) Moshe Greenberg, *Ezekiel 21-37* (AB 22A; New York: Doubleday, 1997), 467-468.

25)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차준희 편저, 「구약 예언서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85-93 참조.

언급된 죄악들은 거룩과 관련된 것으로 제사장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상식적인 규정들이다. 그런데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이것들을 어겼다는 것이다. 거룩한 야웨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수준의 거룩이 기대되었다(레 10:3; 21-22장 참조).<sup>26)</sup>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삶을 무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5가지 죄악을 열거함으로써 과거 조상들에게 강조했던 거룩을 위한 삶과 규정이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통해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거룩은 과거의 죄악이 계속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야웨의 심판의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거룩의 기능은 아주 명확하다. 야웨의 심판의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우상숭배와 가증한 삶을 사는 조상들에게 야웨는 삶의 지침을 주면서 그것의 목적이 거룩한 삶에 있음을 밝혔고, 거룩한 삶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것을 요구하였으며, 야웨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거룩한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그런데 백성들과 나시들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을 심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 1-24장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거룩은 이러한 단계적 설명을 위해 사용된 핵심 요소인 것이다.

## 2) 에스겔 25-32장의 메시지와 거룩

에스겔 25-32장은 열방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개의 열방의 심판을 다루는데 앞의 6개의 열방은 이스라엘을 축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열거된다. 이 단락은 암몬(겔 25:1-7), 모압(겔 25:8-11), 에돔(겔 25:12-14), 블레셋(겔 25:15-17), 두로(겔 26:1-28:19), 시돈(겔 28:20-23),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겔 28:24-26), 애굽(겔 29:1-32:32) 순으로 열거된다. 이러한 메시지 속에 거룩

26) 김덕중, 윗글, 40 참조.

은 3번 나타난다(שָׁבַע, 겔 28:22, 25; שָׁבַע, 겔 28:14). 그런데 특이한 것은 7개의 열방의 심판신탁 사이에 열방과 무관한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에 관한 내용(겔 28:24-26)이 첨가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7)</sup> 정확하게 이 단락은 앞의 79절(겔 25:1-28:23; 6개의 열방심판)과 뒤의 79절(겔 29:1-32:32; 애굽의 심판) 사이에 나타난다.<sup>28)</sup> 상당히 의도적인 배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다루는 단락(겔 28:24-26)에 거룩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sup>29)</sup> 이 단락은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24절)는 앞에서 언급된 6개의 열방의 심판을 정리한다. 이스라엘을 찌르고 아프게 했던 가시와 같은 열방을 심판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2단계(25절)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 고국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26절)는 결론으로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족속이 평안히 거주하게 되고 야웨를 제대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메시지와 함께 거룩이 강조된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יִתְפָּאֵר) 그들이 ... 땅에 거주할지라”(25aβ-b 절).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거룩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거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방의 심판과 열방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는 야웨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 야웨께서 열방을 제압했을 때 이스라엘의 귀환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야웨의 거룩함은 야웨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한다.<sup>30)</sup> 조이스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야웨의 무능력으로 오해했기에 야웨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정정하고 강력한 신으로서 그의 명성

27) Paul M. Joyce, *윳글* (2007), 180 참조.

28) 자세한 논의를 위해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3-12; 송병현, 「에스겔」, (서울: 도서출판 이연, 2017), 407-411, 438-440 참조.

29) 에스겔 28장 22절에 나타나는 ‘거룩’은 24절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에스겔 28장 14절에 나타나는 ‘거룩’은 두로 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30) W. Kornfeld/H. Ringgren, *윳글*, 538-539.

을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다고 주장한다.<sup>31)</sup> 이런 점에서 이 단락에 언급된 거룩은 야웨의 초월적인 능력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7개의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에 야웨께서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는 것을 거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 3) 에스겔 33-39장의 메시지와 거룩

에스겔 33-39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다룬다. 에스겔 33장은 이 단락의 서론으로 에스겔의 파수꾼으로서의 소명과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언급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가 전개될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에스겔 34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내적이고 외적인 회복과 함께 야웨의 주권과 명예의 회복을 다룬다.<sup>32)</sup> 이러한 메시지 속에 거룩의 개념이 14번 나타난다. 땅과 사람과 민족의 회복을 묘사하는 에스겔 36-37장에 7번 나타나고(שָׁרָא, 겔 36:20, 21, 22, 38; שָׁרָא, 겔 36:23[2번]; 37:28), 야웨의 주권과 명예의 회복을 묘사하는 에스겔 38-39장에 7번 나타난다(שָׁרָא, 겔 38:16, 23; 39:27; שָׁרָא, 겔 39:7; שָׁרָא, 겔 39:7[2번], 25). 여기에서는 거룩을 포함하는 에스겔 36장 16-38절과 에스겔 37장 24-28절, 그리고 에스겔 38-39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에스겔 36-37장

에스겔 36장 16-38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귀환과 귀환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다룬다. 이 단락은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16-19절)는 이스라엘 족속의 반역과 야웨의 심판을 다룬다. 이것들은 각각 3가지로 묘사된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고(אָמַסּוּ), 그 땅 위에 피를 흘렸으며(יָשַׁעַ),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אָמַסּוּ).’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윤리적인 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의미한다. 과거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이다. 이것

31) Paul M. Joyce, *원글* (2007), 29-30.

32) 김래용,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학의 기능”,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10-45 참조.

으로 인한 야웨의 심판이 3개의 1인칭 동사를 통해 강조된다.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부었고(7בש),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흘렸고(7יב), 내가 그들의 길과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טבש).’

2단계(20절)는 이러한 심판이 가져온 결과를 기록을 사용하여 강조한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7שׁוֹרֵי קְדֹשׁ)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와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야웨에 대한 치욕적인 평가이다. 한마디로 야웨가 무능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방 나라들의 비웃음인 것이다. 야웨가 무능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sup>33)</sup> 이것으로 인해 ‘야웨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거룩은 야웨의 본질과 그의 구별된 능력을 함축하는 개념이다(겔 20:39 참조).<sup>34)</sup> 그리하여 ‘야웨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야웨의 본질과 능력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21-38절)는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 단락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21-23절은 야웨의 회복에 관한 결단을 강조한다. 회복의 이유가 4가지로 제시되는데 모두 기록을 포함한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7שׁוֹרֵי קְדֹשׁ)을 내가 아꼈다’(21절), ‘이스라엘 족속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7שׁוֹרֵי קְדֹשׁ)을 위함이라’(22절),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7גָּדַלְתִּי אֶת־שְׁמִי הַגָּדוֹל, 23a절), ‘내가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7גָּדַלְתִּי, 23b절). 이것은 2가지 개념으로 정리된다. ‘나의 거룩한 이름’(21절, 22절, 23a절)과 ‘나의 거룩함을 나타냄’(23b절)이다. 첫째로 야웨가 이러한 결단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더

33) Paul M. Joyce, *윗글* (2007), 29-30; 박철우, *윗글*, 536-537.

34) W. Kornfeld/H. Ringgren, *윗글*, 538-539; 랐프 스미스, 「구약신학」(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224-230 참조. 원제는 Ralph L. Smith, *Old Testament Theolog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럽힌 그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웨의 거룩한 이름'은 야웨의 본질과 능력을 함축하는 표현이다(겔 20:39; 36:20 참조). 그런데 열국은 야웨가 무능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야웨는 이러한 그릇된 주장을 정정하기 위하여 결단을 했던 것이다. 둘째로 야웨가 이러한 결단을 한 이유는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야웨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야웨의 거룩함'은 야웨의 능력을 의미한다(겔 28:25 참조).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킴으로써 야웨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거룩은 야웨의 본질과 야웨의 능력을 함축하는 개념인 것이다.

둘째로 24-38절은 야웨에 의한 백성들의 거룩한 변화를 다룬다. 이제까지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야웨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야웨의 백성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sup>35)</sup> 야웨의 주도적인 행위가 강조된다. 애굽과 광야 1-2세대를 통해 조상들에게 지침을 주고(겔 20:5-26),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스라엘 족속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귀환시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야웨께서 손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거룩은 과거(겔 20:10-26)와 현재(겔 20:27-39)와 미래의 이스라엘 족속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에스겔 37장 24-28절도 야웨에 의한 백성들의 거룩한 변화를 다룬다. 여기에서도 야웨의 주도적인 행위가 강조된다. 야웨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목자를 주어 영원히 그들의 나사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야웨가 준 땅에 영원히 거주하게 하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

35)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들의 의미와 기능",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126 참조.

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야웨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야웨께서 이렇게 주도적인 행위를 한 목적은 무엇인가? 28절은 그 이유를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웨인 줄을 (לְאֵלֵינוּ יְהוָה מְקַדֵּשׁ אֶת-יִשְׂרָאֵל) 열국이 알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겔 20:12 참조). 여기에서 목적은 '열국이 알게 하는 것'이며, 그내용은 '야웨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언급된 24-27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야웨는 새로운 왕, 영원한 거주, 화평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 등의 표현을 통해 다양한 약속을 하였다. 이것은 야웨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야웨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반역의 삶을 산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관심과 사랑인 것이다(겔 39:25 참조). 따라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웨'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야웨의 성품에 대한 강조인 것이다. 한마디로 거룩을 가지고 야웨의 구별된 성품, 즉 어떤 피조물(우상; 강대국)과도 구별되는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야웨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다.

## (2) 에스겔 38-39장

에스겔 38-39장은 야웨의 실추된 주권과 명예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36)</sup>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으로 인해 야웨의 주권과 명예는 실추되었다. 백성들은 '야웨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웨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겔 8:12; 9:9)며 야웨의 능력을 의심하고 절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한탄하였다(겔 33:10). 에스겔 38-39장은 이것에 대한 대

36) 에스겔 38-39장에서 학자들은 초기 묵시문학적 요소를 찾기도 하며, 또한 에스겔 38-39장을 40-48장과 묶기도 한다. 그러나 에스겔 38-39장에는 예언자의 주요 문구인 '인지문구'가 나타나지만, 에스겔 40-48장에는 인지문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에스겔 38-39장은 예언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호용, 「에스겔 주석」, (서울: 도서출판 예사빠전, 2015), 401-402. 묵시문학을 위해 스티븐 L. 쿡, 「묵시문학」,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24-132 참조. 원저는 Stephen L. Cook,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답으로 보인다.<sup>37)</sup>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위해 특별히 거룩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에스겔 38장은 ‘이방 나라들 앞에서 야웨의 주권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 장은 야웨의 도구로서 곡의 역할(1-16절)과 야웨에 의한 곡의 심판(17-23절)을 다룬다. 1-16절은 야웨께서 마곡 땅의 왕 곡을 도구로 삼아 그의 백성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방 나라까지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은 그 이유를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야웨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표현이 있다.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בְּךָ אֶתֵּן קְדוּשָׁתִי)’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너’는 곡을 의미한다. 곡은 야웨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야웨는 곡을 강제 동원했다.<sup>38)</sup> 4절은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라고 말하며, 6절은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고 말하고, 16절은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야웨와 곡의 신경전이 드러난다. 곡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야웨는 그의 뜻대로 행하였다. 따라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라는 표현에서 거룩은 압도적인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야웨의 초월적 능력을 의미한다.<sup>39)</sup>

17-23절은 야웨에 의한 곡의 심판을 다룬다. 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였지만 곡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야웨께서는 노하시고 그들을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에서도 이방 나라로 하여금 야웨를 알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37) 김래용, *룻* (2018, L), 33-38 참조.

38) 이기락, 「에제키엘 예언서」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328-329; 박호용, *룻* (2015), 404.

39) Jacob Milgrom/Daniel I. Block, *Ezekiel's Hope: A Commentary on Ezekiel 38-48* (Eugene: Cascade Books, 2012), 17; 박호용, *룻* (2015), 404.

제시된다.<sup>40)</sup> 그런데 특별히 2가지가 강조된다.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곡의 심판과 관련지어 보면, 야웨의 위대함과 거룩함은 야웨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한다.<sup>41)</sup> 왜냐하면 감히 피조물이 통제할 수 없는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 같은 것을 도구로 삼아 야웨께서 곡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는 그의 실추된 주권을 이방 나라 앞에서 회복하신다.

에스겔 39장은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야웨의 명예 회복’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족속은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야웨를 원망하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였다(겔 8:12; 9:9; 33:10 참조). 이러한 자들에게 야웨는 곡의 멸망을 통해 소망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1-20절은 백성들의 소망을 위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1-7절)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의 철저한 멸망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2단계(8-16절)는 곡의 멸망 이후에 있을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야웨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침략자들의 무기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 7년 동안 땀감으로 사용되고, 그들의 시체들이 7달 동안 매장될 것이며, 결국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 땅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3단계(17-20절)는 이스라엘 산 위에서 있을 잔치의 예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과 그의 무리들의 온전한 멸망을 강조한다.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7절은 그 이유를 3번의 거룩을 사용하여 강조한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שְׁמִי קָדְשׁ)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שְׁמִי קָדְשׁ)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יְהוָה יְהוּדָה וְיִשְׂרָאֵל)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기에는 2개의 표현과 2개의 대상이 등장한다.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곡의 온전한 멸망과 사후 처리 과정을 통해 야웨가 얼

40) 침멸리는 일반적으로 ‘야웨에 대한 인지’가 메시지의 최종목적이며 실질적인 절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Walther Zimmerli, *룻* (1982), 33-39 참조.

41) W. Komfeld/H. Ringgren, *룻*, 538.

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여 더 이상 야웨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거룩한 이름은 야웨의 본질과 능력을 함축한다. 둘째는 ‘민족들에게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곡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변화를 통해 민족들은 야웨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웨의 주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야웨와 이스라엘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끊임없는 관심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다(겔 37:28 참조).

21-29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통한 야웨의 명예 회복을 강조한다.<sup>42)</sup> 2 단계로 전개된다.<sup>43)</sup> 21-24절은 야웨의 과거 행위의 요약을 통해 야웨의 명예회복을 부각시킨다. 과거에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가 된 것은 야웨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 야웨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면, 여러 민족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야웨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야웨의 영광’은 거룩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룩은 여호와와의 내적인 본질을 의미한다면, 영광은 그분의 거룩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나타낸다.”<sup>44)</sup> 그리하여 이 단락에 언급된 야웨의 영광은 거룩처럼 야웨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5-29절은 야웨의 미래 행위의 요약을 통해 야웨의 명예회복을 부각시킨다. 야웨는 사로잡힌 이스라엘 온 족속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야웨의 영을 그들에게 쏟고, 다시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범한 죄를 누우치게 될 것이며(26절), 야웨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28절). 그런데 이러한 목적 외에도 2가지가 더 강조된다. 첫째로 야웨는 ‘나의 거룩한 이

42) 박철우, *율글*, 568; 송병현, *율글*, 556.

43) Ronald M. Hals, *율글*, 279-280 참조.

44) 김덕중, *율글*, 43-44 참조.

름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25절).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족속의 귀환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야웨의 '거룩한 이름'은 야웨의 성품과 야웨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역을 일삼던 백성들을 용서하고(성품) 이방 땅에서 구원한다(능력)는 점에서 거룩은 이 2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야웨는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27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의 거룩함'은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와 관련되며 야웨의 능력을 함축하는 표현이다(겔 36:23; 38:16 참조). 여기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겔 33-39장의 구원신약에서 거룩은 야웨의 구원 행위의 핵심 근거가 된다. 이것을 위해 3가지 형태의 표현이 나타난다. '나의 거룩한 이름'은 이스라엘 족속과 관련되어 '야웨의 본질과 능력'을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고(겔 36:20, 21-23a; 39:7a, 25), '나의 거룩함을 나타냄'은 이방 나라와 관련되어 '야웨의 능력'을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며(겔 36:23b; 38:16, 23; 39:27),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웨'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이방 나라와 관련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특별한 성품을 위한 표현으로 사용된다(겔 37:28; 39:7b).

#### 4) 에스겔 40-48장의 메시지와 거룩

에스겔 40-48장은 다양한 회복을 다룬다. 특별히 1-24장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반역으로 인해 영망이 된 것들의 온전한 회복을 다룬다. 우상숭배로 인해 오염된 성전의 회복(겔 8:1-18 // 겔 40:1-42:20), 우상숭배로 인해 떠난 야웨의 영광의 돌아옴(겔 11:22-25 // 겔 43:1-9),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한 백성과 나사와 제사장의 회복(겔 20:27-39; 22:6-16; 22:26 // 겔 43:10-46:24), 우상숭배로 인해 타락한 땅의 회복(겔 6:1-7; 36:17 // 겔 45:1-8; 47-48장)을 다룬다.<sup>45)</sup>

45) 땅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에스겔 47장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 속에 거룩이 48번 나타난다(שִׁירָה, 겔 42:13; שָׁרָה, 겔 44:19, 24; 46:20; 48:11; שָׁרָה, 겔 41:4[2번], 21, 23; 42:13[5번], 14[2번], 20; 43:7, 8, 12[2번]; 44:8, 13[3번], 19, 23, 27[2번]; 45:1[2번], 2, 3[2번], 4, 6, 7[2번]; 46:19; 48:10, 12[2번], 14, 18[2번], 20, 21[2번]). 여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4개의 회복의 주제(성전의 회복; 야웨의 영광의 돌아옴; 백성과 지도자의 회복; 땅의 회복)를 거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전의 회복과 야웨의 영광의 돌아옴이 연결되기에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 (1) 성전의 회복과 야웨의 영광의 돌아옴(겔 40:1-43:9)

에스겔 40장 1절-43장 9절은 성전의 회복을 다룬다. 에스겔 8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온갖 우상들로 오염되었다. 성전 북쪽 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 70명의 장로들이 섬긴 사방 벽에 그려진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여인들이 섬긴 담무스, 성전 안뜰에서 25명이 경배한 대양 등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오염되었다. 그래서 야웨의 영광은 더 이상 성전에 거할 수 없었다. 이제 이 단락에서 야웨는 성전의 회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에스겔 40장 1절-43장 9절의 구조는 명확하다. 에스겔 40장 1-4절은 서론 역할을 하고, 에스겔 40장 5절-42장 20절은 본론 역할을 하고, 에스겔 43장 1-9절은 결론 역할을 한다. 서론(겔 40:1-4)에서 야웨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성읍 형상을 보여주고, 그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명령한다. 그리하여 에스겔 40장 5절-42장 20절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구체적인 내용이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성전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겔 40:5) 담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겔 42:2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담의 기능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13-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 제44집 (2012년 6월), 58-85 참조.



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에스겔 40장 5절은 담의 두께와 담의 높이가 여섯 척(약 3m)이라고 말한다. 높이(גובה)에 관한 내용은 오직 여기에만 나타난다. 한 마디로 높은 담을 통해 성전의 오염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인 에스겔 42장 20절은 담의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것은 담에 대한 내용이 시작과 끝에 배치된 이유이다. 한마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 하자는 의도인 것이다.<sup>46)</sup> 성전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가증한 것으로 인해 다시는 성전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거룩이다.<sup>47)</sup> 담의 역할에 거룩을 포함하여 성전이 거룩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전 회복의 명확한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거룩의 중요성은 이 단락의 결론 역할을 하는 에스겔 43장 1-9절에 다시 한번 강조된다. 이 단락은 우상숭배와 가증한 것으로 성전을 떠난(겔 8-11장) 야웨의 영광이 돌아왔다고 말한다. ‘야웨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5절). 야웨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담으로 둘러싸인 성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48)</sup> 그런데 돌아온 야웨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침을 준다. 그것은 가증한 것들로 다시는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다(7절). 과거에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 이라.’고 강조하면서(8절) 야웨는 이 지침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이다. 멸망의 이유로 거룩이 제시되고, 성전에 관한 새로운 지침으로 거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46) 이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Walther Zimmerli, *Ezekiel 2*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404; 이 기락, *유태*, 345 참조.

47) 이 단락에 성전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 거룩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난다. 지성소(מִצְבָּחֵי הַקֹּדֶשׁ, 겔 41:4), 거룩한 곳(מְקוֹמֵי קֹדֶשׁ, 겔 41:21, 23; 42:14), 거룩한 방(מִצְבָּחֵי הַקֹּדֶשׁ, 겔 42:13), 지성물(מִצְבָּחֵי הַקֹּדֶשׁ, 겔 42:13[2번]), 장소의 거룩함(מִצְבָּחֵי הַקֹּדֶשׁ, 겔 42:13).

48) John G. Gammie, *유태*, 49 참조.

거룩은 이 단락의 핵심 주제와 소재가 된다.

## (2) 제사장과 나시와 백성의 회복(겔 44:15-31; 46:1-12)

에스겔 44장 15-31절은 제사장의 회복을 위한 지침을 다룬다.<sup>49)</sup> 에스겔 22장 26절의 심판신так은 제사장의 타락을 거룩을 가지고 지적하였다. 이제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회복을 다루는 것이다. 이 단락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야 할 앞에서 봉사할 제사장으로 사독 제사장을 강조하며 그들이 행할 여러 지침을 언급한다. 이러한 지침을 위해 무려 6번의 거룩이 사용된다(שָׁרָף, 겔 44:19, 24; שָׁרָף, 겔 44:19, 23, 27[2번]). 물론 제사장의 지침이 모두 거룩과 관련되지만 특별히 몇 가지 지침이 거룩을 통해 강조된다. 먼저 의복에 관한 지침이 강조된다. 성소에 들어가야 할 앞에서 수종을 들 때 땀이 나지 않는 의복을 입어야 하며, 바깥뜰로 나갈 때에는 의복을 거룩한 방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로 19절은 '거룩에 대한 훼손'을 강조한다. 또한 거룩과 관련하여 강조되는 지침은 과거에 제사장들(겔 22:26)이 지키지 못했던 지침에 관한 것이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23절).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24절). 과거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한 불순종을 기억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거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46장 1-12절은 절기와 관련하여 나시들과 백성들의 제사와 관련된 규정을 언급한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과거에 나시들(겔 22:6-16)과 백성들(겔 20:27-39)이 어겼던 규정에 대한 지침이다. 과거에 나시들은 '야웨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안식일을 더럽혔다'(겔 22:8).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가증한 것을 행함으로 야웨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겔 20:39). 이들의 회복을 위한 지침이 이 단락

49) 레위기 10장과 21장으로부터 가져온 법규들은 이 그룹에 기초를 제공한다.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20-48, (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486. 원저는 Leslie C. Allen,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지침들은 거룩에 기초하고 있다. 한 마디로 “거룩함의 개념이 이스라엘 족속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sup>50)</sup>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물을 무시한 나시들에게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제시된다. 안식일과 초하루에 나시들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야 하고,’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야 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는 번제와 소제를 정해진 숫자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과 가증한 것으로 야웨의 이름을 더럽힌 백성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제시된다. ‘백성들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동쪽을 향한 문 입구에서 야웨 앞에 예배해야 하며,’ ‘정한 절기에는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야웨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사장들과 나시들과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다.<sup>51)</sup>

### (3) 땅의 회복(겔 45:1-8; 47-48장)

에스겔 45장 1-8절과 47-48장은 땅의 회복을 언급한다. 과거에 이스라엘 땅은 특히 우상숭배로 더럽혀졌다(겔 6:1-7; 36:18). 그런데 이제 땅의 회복이 약속된다. 이것을 위해 거룩이 19번이나 사용된다(שָׁרָף, 겔 45:1[2번], 2, 3[2번], 4, 6, 7[2번]; 48:10, 12[2번], 14, 18[2번], 20, 21[2번]; שָׁרָף, 겔 48:11). 우상숭배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졌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과 골짜기가 더럽혀졌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땅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땅의 회복은 2가지로 설명된다. 에스겔 47장 1-12절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단락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각종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물은

50) 이기락, 윗글, 379.

51) 김덕중, 윗글, 40 참조.

더럽혀진 땅을 치유하고 생명과 비옥함을 주는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52)</sup> 그런데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성전에서 나온다. 물의 흐름은 땅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땅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sup>53)</sup> 한마디로 거룩하고 풍성한 땅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sup>54)</sup> 이러한 말씀 이후에 에스겔서는 땅의 분배를 언급한다(겔 47:13 이하). 더러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을 주고자 하는 야웨의 의도인 것이다.<sup>55)</sup>

에스겔 45장 1-8절과 48장 1-35절은 거룩한 구역의 지정을 통한 땅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 구역은 이스라엘 7지파(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겔 48:1-7)와 5지파(베냐민; 시므온; 잇사갈; 스불론; 갓, 겔 48:23-29) 사이에 위치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정치와 종교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구역이다. 그런데 이 구역은 ‘거룩한 땅’(קֹדֶשׁ מִן־הָאָרֶץ, 겔 45:1, 4),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מִקְדָּשׁ לְמִקְדָּשׁ, 겔 45:4), ‘구별한/드린 거룩한 구역’(תְּרוּמַת הַקֹּדֶשׁ, 겔 45:6, 7; 48:10, 18, 20, 21)으로 불린다. 이것은 야웨의 철저한 계획으로 세워진 이 구역이 거룩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과 가증한 것들로 인해 오염되었기에 미래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성소가 위치한 구역은 사독제사장에게 분배되었고, 주변 지역은 레위사람과 이스라엘 족속과 나시들에게 분배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이 지파의 영토들로부터 적절하게 격리되어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sup>56)</sup>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이다.

52) Joseph Blenkinsopp, *Ezeki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231.

53) 권오현, *윗글*, 274-275.

54) John G. Gammie, *윗글*, 58; Daniel I. Block, *윗글* (1998), 702 참조.

55) 이기락, *윗글*, 391.

56) 레슬리 C. 알렌, *윗글*, 522. 나시의 영토에 대해서는 Kalinda R. Stevenson, *Vision of Transformation: The Territorial Rhetoric of Ezekiel 40-48* (Atlanta: Scholars Press, 1996), 122-123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겔 40-48장에 언급된 다양한 회복의 내용은 에스겔 1-24장에서 타락한 것으로 묘사된 대상들(성전; 백성과 제사장과 나시; 땅)과 관련된다.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의 담과 거룩한 구역이 언급되는데, 이것들은 거룩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나시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 제공되는데, 이것들도 거룩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한 땅의 정화와 그 뒤에 이어지는 12지파의 땅의 분배도 백성들의 거룩함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에스겔 40-48장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거룩이 이 단락의 메시지 구성을 위한 글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 4. 결론

거룩은 에스겔서의 4개의 단락에 언급된 각각의 메시지(겔 1-24장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겔 25-32장의 열방의 심판; 겔 33-39장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겔 40-48장의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구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와 주제로서 역할을 한다.

에스겔 1-24장의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다루는데, 거룩은 야웨의 심판행위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공한다. 심판을 위해서는 심판의 근거, 심판의 대상, 심판자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거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율례; 규례; 안식일)과 야웨의 본질과 이스라엘 족속의 반역적인 삶이 거룩을 통해 구성되어 야웨의 심판의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한다. 에스겔 25-32장은 열방의 심판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거룩은 이 단락의 중앙에 놓인 이스라엘 회복 메시지와 함께 7개의 열방을 심판할 수 있는 야웨의 초월적인 능력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에스겔 33-39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루는데, 거룩은 야웨의 구원행위의 근거가 된다. 거룩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나의 거룩한 이름'은 이스라엘 족속과 관련되어 '야웨의 본질과 능력'을 부각시키고(겔 36:20, 21-23a; 39:7a, 25), '나

의 거룩함을 나타냄'은 이방나라와 관련되어 '야웨의 능력'을 부각시키며(겔 36:23b; 38:16, 23; 39:27),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웨'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이방나라와 관련되어 '야웨의 특별한 성품'(인애)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겔 37:28; 39:7b). 에스겔 40-48장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형식을 통해 다루는데, 거룩은 회복의 대상들의 핵심 주제와 소재가 된다. 성전의 담과 거룩한 구역의 기능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지침들이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거룩은 에스겔서 전체의 메시지 구성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야웨의 행위의 근거가 되며, 에스겔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지문구와 함께 에스겔서의 목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거룩에 대한 이러한 부각은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겔 1:3 참조).

## 5. 참고문헌

-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연구 3」(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 출판부, 2007).
- 김덕중, 「거룩: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용인: 킹덤북스, 2011).
-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들의 의미와 기능”,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105-133.
- 김래용, “에스겔 1-24장의 심판신탁에 나타난 후카/호크와 길롤과 토에바”, 「신학사상」 180집 (2018년 봄), 9-46.
- 김래용, “에스겔 33-39장에 나타난 구원신탁의 기능”,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10-45.
- 랄프 스미스, 「구약신학」(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원제 Ralph L. Smith, *Old Testament Theolog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20-48」(정일오 옮김), (서울: 솔로몬, 2008). 원제 Al-

- len, Leslie C.,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 박철우, 「에스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박호용, “야웨인지공식의 관점에서 본 에스겔 38-39장의 편집사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신학박사학위 논문, 1999).
- 박호용, “야웨인지공식이 나타나는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심판 본문의 특성”, 「신학과 문화」 11집 (2002년), 43-60.
- 박호용, 「에스겔 주석」(서울: 도서출판 예사빠진, 2015).
- 송병현, 「에스겔」(서울: 도서출판 이엠, 2017).
- 스티븐 L. 쿡, 「묵시문학」(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 Cook, Stephen L., *The Apocalyptic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월터 브루그만, 「구약개론」(김은호/권대영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원제 Brueggemann, Walter,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이기락, 「에제키엘 예언서」(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에스겔 47장 13-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 제44집 (2012년 6월), 58-85.
- 차준희 편저, 「구약 예언서 이해」(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 Blenkinsopp, Joseph, *Ezeki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Cooper, Lamar E., *Ezekiel* (NAC 17;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4).
- Eichrodt, Walther, *Ezeki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0).



- Gammie, John G.,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Gowan, Donald E.,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Greenberg, Moshe, *Ezekiel 21-37* (AB 22A; New York: Doubleday, 1997).
- Hals, Ronald M., *Ezekiel* (FOTL 19;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 Joyce, Paul M.,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5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Joyce, Paul M., *Ezekiel* (New York: T&T Clark, 2007).
- Kohn, Risa L., *A New Heart and a New Soul: Ezekiel, the Exile and the Torah* (JSOTSup 35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 Kornfeld, W./H. Ringgren, “קָרָא”,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7*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521-545.
- Levenson, John D., *Theology of the Program of Restoration of Ezekiel 40-48* (Missoula: Scholars Press, 1976).
- Milgrom Jacob/Daniel I. Block, *Ezekiel's Hope: A Commentary on Ezekiel 38-48* (Eugene: Cascade Books, 2012).
- Soggin, J. Alberto,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 Stevenson, Kalinda R., *Vision of Transformation: The Territorial Rhetoric of Ezekiel 40-48* (Atlanta: Scholars Press, 1996).
- Tuell, Steven S., *The Law of the Temple in Ezekiel 40-48* (Atlanta: Scholars Press, 1992).
- Von Rad, Gerhard, *The Message of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7).
- Westermann, Claus, *Prophetic Oracles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7).

Zimmerli, Walther, *Ezekie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Zimmerli, Walther, *I Am Yahweh*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Zimmerli, Walther, *Ezekiel 2*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검색어

기록

메시지

심판 신탁

구원 신탁

구성 요소

## Messages and Holiness in the Book of Ezekiel

Rae-Yong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both the function of holiness in the messages of Ezekie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oliness and the messages. For this, I analyzed the contents, structures, and expressions of each paragraph including holiness in Ezekiel 1-24, 25-32, 33-39, and 40-48.

The concept of holiness functions as a main element for the composition of Ezekiel. Ezekiel 1-24 deals with the judgment on Judah and Jerusalem. Here the concept of holiness serves as a reason for Yahweh's judgment. The guidelines (decrees; laws; Sabbaths) for their holy life, Yahweh's identity, and their rebellion are mention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holiness. So they provide the reason for and the legitimacy of Yahweh's judgment. Ezekiel 25-32 deals with the judgment of seven nations. Here the concept of holiness emphasizes Yahweh's power which can judge the nations around Israel. Ezekiel 33-39 deals with the salvation of Judah and Jerusalem. Here the concept of holiness serves as a reason for

Yahweh's salvation. The concept appears in three forms. 'My holy name' appears in the messages related to the people of Israel, and it means Yahweh's identity and power (Ezekiel 36:20, 21-23a; 39:7a, 25). 'To prove my holiness' appears in the messages related to other nations, and it means Yahweh's power (Ezekiel 36:23b; 38:16, 23; 39:27). 'The Lord making Israel holy' and 'the Holy One in Israel' appear respectively in the messages related to other nations, and they mean Yahweh's special personality (Ezekiel 37:28; 39:7b). Ezekiel 40-48 deals with the restoration of both the Jerusalem temple and Israel in the vision. Here the concept of holiness serves as an important subject in regard to the objects of his restoration. In particular, the description of both the wall of the temple and a special area is related to keeping the holiness of the temple, and the guidelines given to the people who serve and worship in the temple are related to keeping holiness.

Therefore, the concept of holiness serves as a main element for a composition of the messages of Ezekiel, a basis for Yahweh's actions, and the purpose of Ezekiel which a recognition formula emphasizes. This helps u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holiness in the messages of Ezekiel.

## Keywords

holiness

messages

judgment oracles

salvation oracles

structural elements

- 투고일: 2018년 7월 7일
- 심사일: 2018년 7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